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위험성과 개혁주의 신학적 대안*

The Dangers of the Claim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and Reformed Theological Alternatives

김진규 (Jinkyu Kim)**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dangers of the claim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and presents Reformed theological alternatives. While Enlightenment rationalism significantly influenced natural science development, its dogmatic belief in rationalism, empiricism, and skepticism severely damaged theology. Three main responses emerged to this challenge: attempts to validate theology's academic status through historical criticism or philosophical trends, arguments for separating theology from academia, and efforts to recognize theology's academic natur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e paper critically analyzes Jong-hyun Jang's recent claim that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identifying problems in his views on revelation, theology, and academic disciplines. Drawing from Herman Bavinck's concept of universal science and his understanding of revelation,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ive perspective: "Theology/academic discipline is a systematic study of truth inherent in special and general revelation." This proposition suggests that both theology and other academic disciplines should primarily study God's revelation, with general disciplines focusing on general revelation and theology on special revelation, while maintaining their interconnectedness through the pursuit of truth. This approach establishes theology as a genuine academic discipline while preserving its unique characteristics.

Key Words: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theology, academic disciplines, Herman Bavinck, revelation

* 2024년 11월 4일 접수, 12월 7일 최종수정, 12월 8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백석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백석대학교(Baekseok University) 기독교학부 &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6, 목양관 210호, profjkkim@gmail.com

I. 들어가는 말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신학과 학문 분야의 관계는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계몽주의의 이성주의, 경험주의, 회의주의에 대한 강조는 자연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학문으로서 신학의 지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다. 이러한 긴장 관계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학 교육과 연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주장이다.

연구의 필요성은 장종현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최근 신학을 학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1)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2) 신학은 하나님에 관해 연구하기에, 3) 학문은 구원을 줄 수 없기에 신학은 학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¹ 이러한 주장들은 신학적 지식의 경험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나, 신학적 탐구의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본질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신학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신학과 다른 학문 분야 간의 명백한 분리를 해소할 수 있는 개혁주의적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내재된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둘째, 신학적 탐구와 학문적 탐구를 일관된 인식론적 틀 안에서 통합하는 개혁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학문의 본질과 학계 내에서 신학의 위치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논의들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방법론적으로 이 연구는 역사 분석적 접근과 신학적 접근을 활용한다. 연구는 특히 계몽주의적 이성주의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신학의 학문적 지위를 둘러싼 역사적 논쟁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로 시작한다. 이어서 헤르만 바빙크의 보편학문 개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학과 학문 분야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학적 온전성과 학문적 엄격성을 모두 유지하는 개혁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학문적 탐구와 신학의 관계에 대한 더욱 세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신학의 학문성에 대한 논쟁의 역사 및 이에 대한 평가

17~18세기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은 자연과학 발전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성주의, 경

1) 이 내용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한국개혁신학회 공동학술대회"(개혁주의생명신학회, 2024년 10월 19일)의 개최예배 설교(녹화방송 설교)에서 했던 말이다.

험주의, 회의주의에 대한 교조적인 믿음을 가진 이 사상은 신학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었다(Bristow, 2017).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였고, 논리를 통해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경험적 증거와 관찰을 강조했고, 수학적 사고를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했고, 조직적인 의심을 갖고 대상을 접근했고, 과학적인 방법을 주된 도구로 사용했다.²

1.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견해

바룩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1677)는 엄격한 이성주의적 형이상학 체계를 개발했고, 철학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기하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성경의 신적인 권위에 도전했으며, 성경 비평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성경의 기적을 자연 현상에 대한 오해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았다(Spinoza, 2021).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경험주의를 주창했으며, 그는 Tabula rasa 이론으로 유명하다. 종교적 신앙에 대한 이성적 검토를 옹호했으며,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시도했고, 전통적 신학의 권위에 도전했다(Uzgalis, 2022).

데이빗 흄(David Hume, 1711-1776)은 종교적 기적에 대해 비판했고, 종교적 신앙의 이성적 기초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Brown, 2023).

볼테르(Voltaire, 1694-1778)는 종교적 제도와 성경과 교리를 비판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비판했으며, 종교적 관용과 세속적 사고를 변호했으며, 전통적인 기독교보다 이신론을 도모했다(Voltaire, 1764).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신학을 실제적인 이성으로 제한했고, 순수 이성으로는 종교적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으며, 종교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했다(Rohlf, 2024).

데니스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는 이성주의 이상을 구현한 백과사전(Encyclopédie)을 공동 집필했으며, 이성주의를 경험주의와 물질주의와 통합했으며, 이성적 분석을 예술, 정치, 과학에 적용했다. 그는 백과사전에서 종교적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교회 교리나 권위에 도전했으며,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증진했다(Wolfe, 2019).

이들 사상가의 견해를 요약하면, 신학과 다른 학문의 분리를 주장했으며, 그 결과 역사비평학의 출현을 촉발했으며, 신학의 학문성에 치명적 위해를 가했다. 계몽주의 사상이 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후스토 곤잘레스(Justo L. González)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2) Claude.ai, response to "What is the Enlightenment rationalism?", October 25, 2024, <https://claude.ai/chat/eceafecb-7ce2-41e1-a249-ccf022719d22>. 위의 내용은 Claude.ai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이 소고에서 AI 인용시 “시카고 스타일”을 따랐음을 밝힌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신학 공부에 대한 쉘라이어마허의 관점과 쉘라이어마허가 그것을 옹호했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가 과학적 방법론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던, 따라서 신학과 종교학 연구를 대학 공부에서 배제시키고자 했던, 계몽주의 시대였음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베를린의 한 대학을 하나의 본으로 삼고자 했던 근대 대학에서는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했고 신학 같은 분야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 세기 전에 대학의 탄생을 가져온 신학이 이제는 대학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쉘라이어마허를 비롯해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이들은 신학도 하나의 학문(Wissenschaft)이란 사실을 보여 주어야 했다.

(중략)

그 후로, 그리고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학문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했다. 그런 시도는 신학자들이 자신의 신학을 특정한 철학 사조와 연관시켜 설명하거나 또는 그것을 역사비평적 탐구로 축소시켜 과학이 주장하는 객관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González, 김태형 역, 2019: 187-188).

2. 계몽주의 사상이 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세 가지 반응

(1) 신학의 학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역사비평학이나 철학적 사조에 빗대어 설명한 사람들이 있다.

스피노자는 역사비평학을 성경 연구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선구자이다. 그는 성경이 다른 역사 문서처럼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Spinoza, 2021).

헤르만 라이마루스(Hermann Samuel Reimarus, 1694-1768)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구분했으며,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예수는 실패한 정치 혁명가였다고 주장했다(Reimarus, 1972).

프리드리히 쉘라이어마허(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1768-1834)는 신학을 교리나 형이상학적인 추론보다 종교적 경험에 기초함으로써 이를 새롭게 인식했다. 그는 종교란 근본적으로 '절대적 의존'의 느낌이라고 보았다. 그는 신적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교리나 도그마보다 앞선다고 주장했다. 신학의 임무는 신 존재의 증명보다 종교적 경험을 묘사하고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쉘라이어마허의 사상은 계몽주의의 경험주의 철학에 맞닿아있다. 경험주의자들처럼 그는 추상적인 추론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신학을 관찰할 수 있는 심리적인 현상에 기초함으로써 '학문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Forster, 2022).

다비트 스트라우스(David Friedrich Strauss, 1808-1874)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신화’라는 용어를 소개한 사람인데, 많은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영적인 진리에 대한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대해 도전했다(Strauss, 1835-1836).

페르디난트 바우어(Ferdinand Christian Baur, 1792-1860)는 튀빙겐 학파를 창시했으며 헤겔의 변증법을 교회 역사에 적용했으며, 초기 기독교는 베드로파와 바울파의 분쟁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Baur, 1831).

율리우스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 1844-1918)은 모세오경을 4개의 주된 문서인 JEDP로 가정한 문서 가설을 개발했다. 이스라엘 종교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Wellhausen, 1883).

이들 사상가는 기독교 신학에 계몽주의 사상을 도입함으로써 치명적인 해를 가하게 되었다. 이런 주장의 폐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반동으로 근래 신앙을 잃어버린 신학자도 있다. 신약 교수인 뤼데만(Gerd Lüdemann)의 경우에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Lüdemann, 2020).

이들 사상가는 신학을 계몽주의 철학에 기초함으로써, 신학의 학문성을 인정하려고 했다. 계몽주의 철학의 3대 신조인, 이성주의, 경험주의, 회의주의에 주로 호소함으로써 신학의 학문성을 변호하려고 했다. 이들의 주장에는 계몽주의 학문관을 교조적으로 믿는 그릇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계몽주의 학문관의 문제점은 아래에서 다루겠다.

(2) 신학과 학문의 분리를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가 신학과 학문(science)의 분리를 주장한 것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근대적인 과학적 세계관을 수용한데 대한 대응으로 나온 사실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 바르트는 신학과 자연과학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이들 학문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른 방법론과 연구의 대상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고,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자연 세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신학도 거부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연 세계를 연구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온다고 믿는다. 바르트는 신학과 과학을 분리했지만, 둘이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모든 실체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과학적 발견은 신적 진리와 충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학이 신학적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이 형이상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이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과학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했다. 바르트는 신학과 과학이 분리를 유지하면서 이들 학문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면 된다고 보았다. 바르트의 신학과 학문의 분리는 한편으로는 신학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과 학문과의 대화를 잠재적으로 부정하기에 비판을 받았다.³

쇠렌 키에르케골(Søren Kierkegaard, 1813-1855)은 신학의 중심인 믿음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이기에 과학적인 객관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적 믿음의 개인적인 성격과 이의 이성적 탐구와의 내재적 긴장 관계를 강조했다(Kierkegaard, 1983 ; Kierkegaard, 1992).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는 신학과 과학의 관계는 독특한 차원에서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았다. 신학과 학문은 진리와 실체의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들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로 생긴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학문은 객관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사실의 영역, 그가 소위 말하는 '수평적 차원'을 다룬다. 반면에 신학은 궁극적인 관심사와 의미에 관한 질문들, 즉 '수직적 차원'을 다룬다(Tillich, 1951: 3-68).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학문은 신학적 진리에 대해 위협이 되지 않는데, 이유는 이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학문과 종교의 갈등은 종교가 부적절한 과학적 주장을 하거나 과학이 이의 경계선을 넘어 형이상학적인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갈 때 생긴다고 본다(Tillich, 1951: 71-159). 그러나 틸리히는 신학이 학문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신학이 과학적 지식과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이 둘이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 실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Tillich, 1951: 3-159 ; Tillich, 1957: 31-54).

신학과 학문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상가들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계몽주의적 학문관이 깔려 있다. 계몽주의적 학문관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게 되면, 신학의 학문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바르트의 경우에는 당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신학의 자유주의화로 말미암아 신학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당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장처럼 선포한 것이라고 본다. 키에르케골의 관점은 어떤 의미에서 슐라이어마허의 관점과 비슷하다. 믿음의 주관성 때문에 신학의 학문성을 부정할 경우이다. 슐라이어마허는 신앙적 경험을 경험주의 철학에 기초해서 학문성을 변호한 경우이다. 틸리히의 경우에는 신학과 학문의 연구 영역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서로 간에 모순된 개념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이 두 학문이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체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은 필자가 나중에 제시할 이론과 유사한 점이 많다.

3) Claude.ai, response to "What is Karl Barth's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logy and science?", October 29, 2024, <https://claude.ai/chat/4d1100ec-840d-4467-b0ea-193e87b1b56f>. 위의 내용은 Claude.ai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3) 다른 각도에서 신학의 학문성을 인정한 학자들도 있다.

헤르만 바빙크는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의 근거는 보편학문의 입장에서이다.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다”라는 주장은 원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가 중세에 했던 주장이다. 그런데 그의 견해는 바빙크의 주장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버나드 로너간(Bernard Lonergan, 1904-1984)은 과학적 방법과 유사한 신학 방법론을 개발했다. 그에 의하면 신학과 학문은 유사한 인지과정에 따라 작동하는 상호보완적 탐구 방법들인데, 단지 연구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신학도 다른 학문처럼 경험, 이해, 판단, 결정이라는 구조화된 과정을 수반한다고 그는 본다.⁴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 1953-present)는 원래 분자생물물리학을 공부한 배경을 가진 신학자로서 신학은 훈련되고 엄격한 학문 분야라는 넓은 의미에서 학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학과 학문에 있어서 비판적 리얼리즘(critical realis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신학과 학문은 비록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질문을 다루지만, 이 둘은 함께 실체를 묘사하고 설명한다. 그는 과학적 환원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를 모두 거부하고, 대신 이들 학문이 세상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를 풍성하게 한다고 보았다(McGrath, 2004: 1-33). 맥그래스는 자연신학을 다시 살려서 현대화했는데, 이를 과학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전통적인 자연신학과는 달리, 그의 접근은 한편으로 신학적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현시대의 과학적 통찰력을 통합하려 한다(McGrath, 2009). 그는 신학과 학문의 갈등은 근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학은 과학적 탐구의 동기와 골격을 종종 제공했다고 본다. 하지만 맥그래스는 신학과 학문 간에 서로 충돌하는 관점에서 보는 ‘갈등 논지’나 서로 간에 항상 보완한다고 보는 ‘조화 논지’ 양극단에 대해 경계한다(McGrath, 2001).

바빙크의 보편학문이란 개념과 맥그래스의 자연신학에 대한 수정된 관점은 필자의 관점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나중에 이를 함께 종합하여 신학에 대한 명제를 제안하려고 한다.

3. 계몽주의 학문관의 한계

계몽주의 사상은 한편으로 자연과학의 발전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의 발전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먼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의 한계는 이성과 경험적 증거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말미암아 다른 형

4) Claude.ai, response to "What is Bernard Lonergan's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logy and science? Include references in the APA format with the page number.", October 29, 2024, <https://claude.ai/chat/f9365778-8b82-409f-99d5-dfd43d031ca0>. 위의 내용은 Claude.ai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태의 지식을 경시하게 되었다(Taylor, 2007). 특히 감정적, 영적인 인간 경험의 차원을 무시하게 되었다(Palmer, 1998).

방법론상의 제약은 질량화와 측정에 너무 의존하였고, 복잡한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축소했고, 질적인 연구 방법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고, 모든 진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Nussbaum, 2001).

학문적인 구조에 있어서 지식을 서로 별개의 학문으로 인위적으로 분리했으며, 총체적인 이해를 파편화했으며, 복잡한 학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어렵고, 딱딱한 과학을 상위에 두는 학문적인 위계 질서를 만들었다.

특히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치명적인 해를 끼쳤는데, 인간의 본성과 사회에 대한 기계적인 관점을 도입했으며, 지식의 맥락적 관계적 양상을 무시했으며, 집단적 이해보다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인간의 경험을 이성적인 과정으로 축소했다(Bellah, 1985 ; Bohm, 1980).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팩트와 가치를 분리시켰고, 이성주의적 자기 이익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도덕적 상대주의를 낳았으며, 규범적 질문에 대해 답하기 어렵고, 윤리적 고려와 과학적 탐구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어렵게 했다(MacIntyre, 1981: 51-61 ; Taylor, 1989).

계몽주의 사상의 이런 한계를 칸트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칸트의 현상(phenomena)과 본질(noumena)에 대한 구분은 인간의 이성이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론적 이성은 외관에 제한되고(현상), 본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본질). 이론적 이성으로는 하나님이나 자유나 불멸성에 대해서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실천적 이성은 이론적 이성이 할 수 없는 도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실천적 이성은 하나님이나 자유나 불멸성에 대해서 실천적 필요로서 가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⁵ 칸트의 이론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믿음과 지식을 구별하고 있다. 종교적 믿음은 실천적 이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관념적 신학보다 도덕적 신학을 주장했다. 칸트의 도덕적 신학관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5) Claude.ai, response to "Explain Kant's concept of phenomena and noumena", October 29, 2024, <https://claude.ai/chat/eceafecb-7ce2-41e1-a249-ccf022719d22>. 위의 내용은 Claude.ai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III.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진술의 논리적 허점과 위험성

현시대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신학은 무엇이고, 학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지금 필자의 논지는 17~18세기의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신학이나 학문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 2~300년 흐른 시점에 학문 관도 많이 바뀌었고, 신학관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신학의 학문성 여부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신학은 무엇인가?

플라톤의 신학 사상은 소크라테스에게서 전수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신적 본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인간의 덕과 행복에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신의 본질적인 선함이 신학적 논의의 주된 의제였다(Sedley, 2019: 627-644).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학(theologiké)을 한 신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신들과 신성한 것들에 대한 연구로 보았다(Menn, 2012: 422-464). 즉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은 ‘신(들)에 관한 연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그리스 철학자의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곧 기독교에서 신학을 논할 때 거의 그대로 도입이 되었다.

초대 교회 시대의 교부 저스틴 마티(Justin Martyr, 100-165)는 신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신학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합리적인 원리들로 나타난 로고스(신적 이성/말씀)에 관한 연구’라고 이해하고 있다(Grant, 1988).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150-215)는 신학이란 개념을 ‘신적 계시와 철학적 추론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관한 연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Osborn, 2005: 111-153).

오리겐(Origen, 185-253)은 신학이란 용어를 “예수님에 관한 신학”이란 말로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신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가 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한 문맥을 살펴보면, 신학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하는 것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Patrick, 2004: 470-471).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 329-390)는 삼위일체 교리를 변호하는데 신학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특히 성령론에 대한 기여가 두드러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발출(procession)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는 후대에 성령님에 대한 사상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Wikipedia, "Gregory of Nazianzus").

히포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은 신학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신학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조직적인 연구와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는 또한 신학을 ‘믿음과 이성을 통해 신적 진리에 이르는 역동적인 이해의 과정’으로 바라본다(Brown, 2000).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Cyril of Alexandria, 376-444)도 명시적으로 신학의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신학이란 개념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학문, 이를 위해서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차이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술적인 언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신성과 인성의 이해를 위한 실제적인 함의를 포함한다(Wikipedia, "Cyril of Alexandria").

요컨대, 초대 교회시대 교부들의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본성과 관계된 모든 것”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Jackson, 2004: 7).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신학을 ‘거룩한 교리’라고 정의하고, 이를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원리들로부터 온 학문’(scientia)이라고 규정한다. 이 시기에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된다. 그는 신학을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하고 있고, 신학 연구의 초점이 계시에 대한 지식에 있음을 밝힌다(Aquinas, 1947, I.1.2 ; I.5.).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중세의 스콜라주의 이해를 거부하고, 신학을 ‘죄인으로서 인간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로 규정한다(Luther, 1958, 1: 14).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학을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데, 그는 신학을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이해한다(Calvin, I.1.1.).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보았다(Calvin, I.1-6.). 자신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죄와 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Calvin, I.1.1. ; II.1.).

그 이후 17~18세기에 도달하게 되면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신학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칸트는 ‘신학은 실제적인 이성으로만 알려질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신학은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경험과 도덕으로 옮겨진다(Kant, 1996). 슈라이어마허는 신학을 ‘기독교인의 종교적 애정에 대한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Schleiermacher, 1996).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신학을 ‘기독교인의 종교적 경험과 절대적 의존 의식에 관한 조직적인 연구’라고 본다(Schleiermacher, 1928). 두 사람에게서 신학이 매우 주관적인 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근대와 현대에 와서 신학은 크게 다양성을 띠게 된다.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경험을 강조한 것을 거부하고 신학에 대한 좀 더 고전적인 이해로 돌아간다. 그는 신학을 “복음의 하나님을, 즉 복음 안에서 스스로를 알리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에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에 의해!) 인지하고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Barth, 신준호 역, 2023: 11). 바르트의 신학관을 간략히 기술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시고 알리신 특별 계시에 대한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신학이 다변화되어 조직 신학, 성서 신학, 실천 신학, 상황 신학 등 다양한 신학으로 분리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신학의 춘추전국시대에 신학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2. 학문이란 무엇인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독일 학계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사용한 용어가 Wissenschaft인데, 이는 주로 science로 번역되지만, 사실 이 용어의 뜻은 다양한 academic disciplines를 포괄하는 단어다. 영어는 sciences(과학)와 humanities(인문학)를 구분하지만, 독일어의 Wissenschaft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을 아우르는 모든 학문 분야의 조직적이고, 엄격한 연구와 지식을 포괄하는 단어이다.⁶ Wissenschaft의 두 가지 주된 의미인 science나 academic discipline의 경우에 이들 용어에 대한 학계의 정의는 지금까지 일치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1) science로서의 학문 개념

영어의 science는 오랜 시간 상당한 개념의 변화를 겪었다. 이 단어는 지식을 의미하는 라틴어 scientia에서 유래했으며, 근대적 의미의 science는 수 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독특한 탐구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Dear, 2006). 고대 그리스에는 근대 과학의 선구자 격인 자연 철학이 세상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물리학과 자연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이 경험적 관찰과 분류를 위한 토대를 놓게 되었다(Lindberg, 이종흡 역, 2009: 53-125). 중세 시대에는 science가 지식의 조직적인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었다(Grant, 1996).

16~17세기의 과학적 혁명은 science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다. 갈릴레오, 베이컨, 뉴턴과 같은 인물들은 경험적 관찰과 실험과 수학적 분석을 과학적 탐구의 기초로 세웠다(Bacon, 1620 ; Galileo, 1632 ; Newton, 1687 ; Koyr é , 1957). 샤프에 의하면 과학적 변화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묘사된 것보다 더 점진적이고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

6) Claude.ai, response to "Provide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Wissenschaft", October 29, 2024, <https://claude.ai/chat/3dd7407a-10ca-4919-8322-51a42694edf1>. 위의 내용은 Claude.ai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장했음을 강조한다(Shapin, 1996). 19세기의 윌리엄 웨웰(William Whewell)은 ‘과학자’라는 말을 만들었으며, 근대적 개념의 과학적 방법론을 만드는데 이바지했다(Snyder, 2011).

20세기에 science의 정의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경험했다. 과학 이론의 기준으로서 칼 포퍼(Karl Popper)의 반증 가능성 개념은 과학적 주장이 검증 가능하고 잠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Popper, 1959). 과학적 패러다임과 혁명에 대한 토마스 쿤(Thomas Kuhn)의 획기적인 연구는 과학을 순전히 객관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으로 보는 견해에 도전하며, 과학 발전에 있어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했다(Kuhn, 김명자·홍성욱 역, 2013: 61-128).

오늘날 과학에 대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관찰, 실험, 가설 수립 및 테스트를 통해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해된다. 전미 과학 아카데미(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08)는 science를 “자연 현상에 대한 시험 가능한 설명과 예측,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증거의 사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science의 정의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자연 세계’에 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영어권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science의 정의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에 이의 범위, 방법론, 다른 형태의 지식과 탐구와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Rosenberg, 2000: 1-6).

(2) academic disciplines(AD)로서의 학문 개념

우리의 논의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이란 용어는 academic disciplines일 것이다. 이는 대학 레벨에서 가르치거나 연구되는 지식의 지류를 가리킨다. 이의 구체적인 초점, 일련의 규칙, 방법론, 지식 체계가 특징인데, AD의 정의와 이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했다(Stichweh, 2001: 13727-13731).

역사적으로 AD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지식은 구분된 연구 분야로 범주화되었다(Marrou, 1982).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AD는 중세 후반과 초기 르네상스 시기의 대학의 설립과 함께 형성되기 시작했다(Cobban, 1975). 계몽주의 시기에 지식의 상당한 확장과 전문화가 있었기에, 좀 더 분명한 AD를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학문의 발전은 국가의 이익과 관료적 필요에 의해 고무되었다(McClelland, 1980). 19세기에는 특히 독일과 미국에서 연구대학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학문의 공고화가 이루어졌다. 19세기 초에 세워진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연구대학 모델은 가르침과 연구의 통합을 강조했다. 이 모델은 지식을 조직화해서 학

문과 근대 대학 구조로 정립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Clark, 2006 ; Wittrock, 1993: 303-362).

20세기에 이르러 AD의 수효는 고등교육의 확장과 늘어난 지식의 전문화로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곧 학문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처와 트롤러(Becher & Trowler, 2001)는 학문은 인지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기에 학문은 지식의 체계일 뿐만 아니라 공유된 실행과 가치를 겸한 학자들의 공동체란 사실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엄격히 구분된 학문적 범주의 한계를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학제 간 그리고 학문 분야를 뛰어넘는 접근법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 구분된 학문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에 대해 도전하게 되었다(Klein, 1990).

21세기에는 학제 지식의 조직과 생산에 대한 디지털 기술, 세계화, 변화하는 사회적 필요의 영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문의 정의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Trowler et al., 2012).

지금까지 학문의 정의를 살펴본 결과 지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학문에 대한 공감하는 정의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과연 학문에 대한 정의가 유동적인 상황 가운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 ‘신학’을 접근하기 위한 성경적 관점에서 학문의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IV.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위험성

최근 장종현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신학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학문적 도구를 통해 신학함’이라는 관점에서 ‘신학의 학문성’을 인정하고 있다(장종현, 2023: 56-87). 그렇지만 그는 단지 ‘학문성’이 있다고 말할 뿐이지, 신학이 ‘학문’이란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학의 본질에 대해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라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현시대가 항상 각 성해야 할 중요한 핵심이지만, 2000년 교회 역사상 신학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한 종교개혁자들이나 초대 교부들은 이미 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칼빈을 위시한 개혁주의자들은 이미 신학 연구의 기초로 이 전제를 깔고 있다. 신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역사, 말씀 순종에 대해서 어느 누가 경시할 수 있겠는가? 신학함에 있어서 토마스주의자들은 이론적인 면을 강조했고, 스코투스주의자들은 실천적인 면을 강조했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신학의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을 모두 강조했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64).

1. 장종현의 신학에 대한 주장들의 문제점

“개혁주의생명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공동학술대회”(개혁주의생명신학회, 2024년 10월 19일)의 개회예배 설교(녹화방송 설교)에서 장종현은 신학이 학문이 아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은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학문은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주장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하나씩 논하겠다.

(1) 계시관의 문제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학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는 계시관의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늘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 저자의 지식과 언어와 문화와 배경 등이 녹아져 들어있다(Berkhof, 1988: 115-124).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저자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다. 우리는 인간 저자의 기록을 통해서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신학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인간 저자의 역할을 도외시한 이런 계시관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분명한 계시관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 신학관의 문제점

하나님은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없기에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그의 제한적이고 편협한 생각이 깔려 있다. 아쉽게도 그의 신학관은 어떤 의미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하나님을 앎’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현시대의 신학의 다양한 이해와 맞지 않는다. 현재 신학을 단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직 신학의 신론에 해당되는 좁은 견해란 사실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40 ; González, 김태형 역, 2019).

앞에서 보았듯이, 지금은 신학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성서 신학, 조직 신학, 실천 신학, 상황 신학 등 다양한 신학에 대한 정의가 존재한다.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실제 신학에 수반되는 연구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이런 마당에 신학에 대한 구시대적 신학 정의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신학 논의에 너무 환원주의(reductionism)의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닐까?

앞에서 보았듯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신학 연구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연구도 포함시키고 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성경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조직 신학만 생각해도 신론, 인론, 기독교론,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등 다양한 주제를 신학에서 다룬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신학 연구의 대상들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계시를 떠나서’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한다 말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다. 안다고 할지라도 아주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그래서 이 질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계시하고 있는 특별계시(성경)와 일반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앞에서 보았듯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신학의 대상이 점차 계시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을 보았다. 이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3) 학문관의 문제점

학문은 구원을 줄 수 없기에 신학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오류뿐만 아니라 학문관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비학문은 구원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가 비학문적인 신학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고 있는가? 신천지 같은 경우 전혀 학문성이 없는 비유 풀이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꾀고 있는가? 학문 그 자체는 구원관과 바로 연결시킬 수 없는 범주에 속한다. 학문은 단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수술실의 메스는 의사의 손에 잡힐 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도구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메스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메스를 사용하는 유능한 의사의 의술에 달린 것이다. 수술실의 메스처럼, 학문이나 신학은 단지 진리를 캐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게다가 장종현의 학문관은 계몽주의자들이 가졌던 학문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신학을 판단하고 있다. 그의 이런 억지 주장은 논리적인 오류일 뿐만 아니라 학문관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V. 바빙크의 보편학문 개념 속에서 발견된 개혁신학적 대안

1. 바빙크의 신학관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는 보수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신학의 학문성을 변 호한 대표적인 칼빈주의 신학자이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오래전에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다” (Aquinas, 1947, I.5.)라고 주장한 기치를 다시금 높이 들고 흔든 신학자이다. 그런데 그의 이론적 근거는 스콜라주의적 이성애 호소한 것이 아니라, 계시의 관점에서 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바빙크는 신학을 원리, 내용, 목적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는 신학을 그냥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신학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당시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그릇된 신학과 구분하기 위해 수식어를 붙인 것 같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16-80).

첫째, 바빙크의 거룩한 신학의 원리는 성경이다. 그는 “오직 성경만이 신학이 추론되는 원리, 신학이 유도되는 유일한 지식의 원천”으로 보았다. 우리가 신지식을 얻는 인식의 원리는 오직 성경뿐이라고 강조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23-26). 이성주의는 “성경 옆에 혹은 성경 대신” ‘인간의 이성’에 권위를 두었고, 슬라이어마허는 종교적 감정이 ‘종교적 지식의 원천’으로 보았다. 그러나 바빙크는 성경이 ‘유일하고 충분한 원리’라고 강조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26-32).

둘째, 바빙크의 거룩한 신학의 내용은 하나님이다. 그는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런 주장이 좁은 의미에서 조직신학의 ‘신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39-40). 그는 신학과 학문이 하나의 접촉점을 갖는데, 이는 코스모스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보았다. 다른 학문도 하나님과 함께 관계성을 지닌 피조물이기에 이런 차원에서 신학은 ‘보편학문’이라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신학은 다른 모든 학문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오히려 다른 학문도 성경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신학은 학문이요, 학문의 여왕”이라고 본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56-58).

셋째, 바빙크에 따르면 신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72). 그는 “거룩한 학문들과 세속적 학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단 하나의 거룩하고 영광스런 학문이 있다면 그것은 신학입니다.”라고 주장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76-77). 이런 관점에서 바빙크는 “반드시 진리의 질서, 연관성을 알아야 하며, 진리의 체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63).

바빙크는 신학은 ‘이론적인 학문인가, 실천적인 학문인가’에 대해서도 논한다. 토마스주의자들은 이론적인 면을 강조했고, 스코투스주의자들은 실천적인 것을 강조했지만, 개혁주의자들은 둘 다 모

두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생명에 근거한 신학은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66). 그의 이런 관점은 이론과 실천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개혁주의 전통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신학은 ‘확실히 이론적 학문’이란 사실을 먼저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과 모든 힘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학이 단지 실천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겠다는 말과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이 단지 선하게만 산다면 굳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66). 그는 또한 신학은 철저하게 ‘실천적 학문’이라고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신학에서 삶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67). 그래서 바빙크는 “실천 신학은 신학의 면류관”이라고 보았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67).

2. 바빙크의 계시관

마지막으로 바빙크가 신학과 학문의 통합적 관점을 위해 제공한 지대한 기여는 그의 ‘계시관’이다. 그의 『계시 철학』(Philosophy of Revelation)에서 ‘계시는 종교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실체’라고 본다. 하나님은 자신을 일반계시(자연, 역사, 양심)와 특별계시(성경)를 통해 알리셨다. 계시는 초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이며,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것으로 보았다(Bavinck, 2018: 3-25). 그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거부하는 근대 철학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순수한 이성주의나 경험주의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설명하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avinck, 2018: 26-69). 그리고 과학과 계시는 내재적으로 모순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과학적 지식도 넓은 의미에서 계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그 자체가 해석을 요하는 신적 계시의 한 형태라고 본다.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선하심을 계시하며, 자연 계시가 인간 지식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지만, 이것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인간의 죄가 자연 계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Bavinck, 2018: 70-91).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심이요 충만함이라고 본다. 기독교의 계시가 모든 실체를 이해하는 체계를 제공한다고 믿는다(Bavinck, 2018: 92-116, 142-163). 그는 인식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식은 신적 계시에 의존하며, 이성과 믿음은 보완적이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지식은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수용 둘 다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Bavinck, 2018: 164-191). 요컨대, 바빙크에 따르면 계시는 모든 실체를 아우르기에 모든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는 자연, 역사, 인간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그는 총체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제공하고 있다.

VI. 신학과 학문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명제 제안

앞에서 보았듯이 아직 일반학문에서는 ‘학문’이 무엇이나에 대해 정해진 정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생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반학문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학문관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의 학문관도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세계관과 학문관을 가져야 한다. 장종현의 문제점은 신성한 신학을 논하면서 왜 세속적 학문관을 갖고, 그것도 헬라철학과 계몽주의의 구시대적 학문관을 갖고 와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필자는 제안하려고 한다.

필자는 바빙크의 신학과 계시관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나름대로 신학과 학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려고 한다. 바빙크는 신학 안에 학문을 함께 통합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본다. 필자는 신학뿐만 아니라 일반학문도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별개로 다루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필자가 제안하는 명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에서 제안하려 한다.

‘신학/학문이란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에 내재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라는 명제를 제안한다.

신학과 학문은 일차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계의 공감대가 있다. 일반학문은 일반계시의 영역에서 학문 활동을 주로 하고, 신학은 특별계시(성경)의 영역에서 주로 학문 활동을 한다. 그렇다고 일반학문이 특별계시의 필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특별계시를 통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반계시 속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학문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빙크가 말한 대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 진리를 찾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학문의 목표라고 본다.

과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뉴턴 역학이 당시에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졌지만,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면서 뉴턴의 이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맞지 않는 것이 있기에 새로운 모델이 근년에 제시되고 있다(Wikipedia, "Superstring theory"). 물리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당시에는 절대 진리처럼 보이던 이론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더 진리에 가까운 모델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불변하는 것

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즉 진리이다. 일반계시에 내재 된 완전한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학문 활동이라고 본다. 그래서 진리를 세우신 창조주에 대한 이해를 특별계시로부터 얻지 못한다면 그 학문은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반면에 신학도 특별계시뿐만 아니라 일반계시의 도움도 필요하다. 특별계시를 해석하는 도구인 성경 해석학은 다양한 학문의 도움을 받아 발전하고 있다. 역사학, 철학, 언어학, 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의 도움을 받는다. 이들 일반학문의 이론들은 특별계시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고전처럼 여기던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와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가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20세기 후반 언어학이 발전하면서 ‘단어’와 ‘개념’의 구분이 사전에 집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개념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언어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서 이들 사전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개념을 집어넣어 연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 방대한 사전은 단어 속에 개념을 마구 집어넣어 집필한 오류투성이의 작품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일반계시로부터 온 진리 지식도 특별계시의 연구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바빙크가 신학 연구에는 특별계시만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닐까?

이제 신학과 학문의 연구 대상이 계시에 내재 된 ‘진리’란 사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신학이나 일반학문이 연구하는 대상이 너무나 다양하기에 이를 모두 포괄하는 더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를 ‘진리’라고 본다. 성경의 진리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적으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로 계시하고 있다(시 31:5; 요 14:6; 16:13).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라고 칭한다(시 119:43; 요 17:17). 하나님의 계시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피조 세계를 아는 근본 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일반학문의 대상도 결국 진리라고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속에 부여하신 질서를 진리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학문이란 이 진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본다. 물리적인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이나 인문학적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고 말한다(롬 1:20).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등 자연과학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리에 근접할 때, 최고의 학문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사회현상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회질서라는 진리에 근접할 때, 가장 효과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인문학도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진리에 가까울수록 더욱 유용한 인문학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거스르는 그릇된 학문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진화론은 성경의 계시뿐만 아니라 자연법칙과도 맞지 않는 이론이다.⁷ 유물사관도 성경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상이다. 진정한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타락한 심성으로부터 나온 그릇된 사상을 걸러내고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학적 관점에서 일반학문의 비학문적인 요소를 비판하고 걸러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바는 일반학문(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그릇된 신학도 포함) 중에서 비학문적인 사상을 향해 ‘학문이 아니다’라고 외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문이나 신학이 학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는 학문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신학이나 학문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에 내재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신학은 진정한 학문이요, 학문의 왕이 될 것이다.

VII. 나가는 말

이 논문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혁신학적 대안을 제시했다. 일반학문에서는 아직 '학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반학문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학문관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성경에서 나온 학문관을 가져야 한다. 이에 바빙크의 신학관과 계시관을 바탕으로, “신학/학문이란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에 내재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라는 통합적 관점의 명제를 제안한다.

이 명제에 따르면, 신학과 학문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일반학문은 주로 일반계시 영역에서, 신학은 주로 특별계시 영역에서 학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두 영역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계시에 내재된 '진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학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진리를 거스르는 그릇된 학문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타락한 심성에서 나온 그릇된 사상을 걸러내고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7)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아직 진화론을 설명할 만한 화학학적 증거가 없다. 그리고 진화론은 열역학 제2법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진화론은 명백한 자연법칙과 맞지 않는 사이비 과학이다.

결론적으로, 신학이나 학문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에 내재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신학은 진정한 학문이요, 학문의 왕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명자·홍성욱 역 (2013). *과학혁명의 구조*.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서울: 까치.
- 김태형 역 (2019). *신학 교육의 역사*. Gonz á lez, J. L. (2015). *The History of Theological Education*. 서울: 부흥과개혁사.
- 박태현 역 (2021).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를 위한 신학*. Bavinck, H. (1883). *De wetenschap der H. Godgeleerdheid*. 서울: 도서출판 다함.
- 신준호 역 (2023). *개신교신학 입문*. Barth, K. (1970).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Theologie*. 서울: 복 있는 사람.
- 이종흡 역 (2009). *서양과학의 기원들: 철학·종교·제도적 맥락에서 본 유럽의 과학 전통, BC 600 ~ AD 1450*. Lindberg, D. C. (2007). *The Beginnings of Western Science: The European Scientific Tradition in Philosophical, Religious, and Institutional Context, Prehistory to A.D. 1450*. 파주: 나남.
- 장종현 (2023).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서울: 백석정신아카데미.
- Aquinas, T. (1947). *Summa Theologica*.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ew York: Benziger Bros.
- Bacon, F. (1620). *Novum Organum*. London: [Publisher unknown].
- Barth, K. (1975). *Church Dogmatics I/1*. (Ed.) Bromiley G. W. & Torrance. T. F. Edinburgh: T&T Clark.
- Baur, F. C. (1831). *Die Christuspartei in der korinthischen Gemeinde, der Gegensatz des paulinischen und petrinischen Christentums in der ältesten Kirche, der Apostel Petrus in Rom*. Tübingen: Tübinger Zeitschrift für Theologie.

- Bavinck, H. (2018). *Philosophy of Revelation*. Peabody, MA: Hendrickson.
- Becher, T. & Trowler, P. (2001). *Academic Tribes and Territories: Intellectual Enquiry and the Culture of Discipline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Bellah, R. (1985).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rkhof, L. (1988).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MI: Baker.
- Bohm, D. (1980). *Wholeness and the Implicate Order*. London: Routledge.
- Bristow, W. (2017). "Enlightenment".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enlightenment/> (2024.10.29).
- Brown, C. R. (2023). "David Hume".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hume/> (2024.10.29)
- Brown, P. (2000). *Augustine of Hippo: A Biograph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lvin, J.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attles, F. L. (Ed.) McNeill. J. T.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 Clark, W. (2006). *Academic Charisma and the Origins of the Research Universi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bban, A. B. (1975). *The Medieval Universities: Their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London: Methuen.
- Dear, P. (2006). *The Intelligibility of Nature: How Science Makes Sense of the Worl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rster, M. (2022).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schleiermacher/#PhilReli> (2024.10.29).
- Galileo, G. (1632). *Dialogue Concerning the Two Chief World Systems*. Florence: [Publisher unknown].
- Grant, E. (1996). *The Foundations of Modern Science in the Middle Ages: Their Religious, Institutional, and Intellectual Contex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nt, R. M. (1988). *Greek Apologists of the Second Century*.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 Jackson, B. (2004). The Book of Saint Basil on the Spirit. In Schaff P. & Wace H.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8).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 Kant, I. (1996). *Religion Within the Boundaries of Mere Reason*. Trans. Wood, A. & di Giovanni, 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erkegaard, S. (1983). *Fear and Trembling/Repetition*. Trans. Hong, H. V. & Hong, E. 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erkegaard, S. (1992).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o Philosophical Fragments*. Trans. Hong, H. V. & Hong, E. 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lein, J. T. (1990). *Interdisciplinarity: History, Theory, and Practice*. Detroit, MI: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Koyré, A. (1957). *From the Closed World to the Infinite Universe*.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ndberg, D. C. (2007). *The Beginnings of Western Science: The European Scientific Tradition in Philosophical, Religious, and Institutional Context, Prehistory to A.D. 1450*.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üdemann, G. (2020). "Diese Theologie ist keine Wissenschaft". Retrieved from <https://www.user.gwdguser.de/~gluedem/ger/t101007.htm> (2024.10.29)
- Luther, M. (1955-1986). *Luther's Works*. (Ed.) Pelikan, J. & Lehmann, H. T. St. Louis, MO: Concordia Publishing House & Fortress Press.
- Luther, M. (1958). Lectures on Genesis, chapters 1-5. in Pelikan, J. (Ed.) (1958). *Luther's Works*. (Vol. 1, p. 14). St. Louis, MO: Concordia Publishing House.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rrou, H. I. (1982).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McClelland, C. E. (1980). *State, Society, and University in Germany, 1700-19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Grath, A. E. (2001). *Science and Religion: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McGrath, A. E. (2004). *The Science of God: An Introduction to Scientific Theology*. London:

- T&T Clark International.
- McGrath, A. E. (2009). *A Fine-Tuned Universe: The Quest for God in Science and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Menn, S. (2012). "Aristotle's Theology". In *The Oxford Handbook of Aristotle*. Retrieved from <https://academic.oup.com/edited-volume/28232/chapter-abstract/213298301> (2024.10.29)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08). *Science, Evolution, and Creationism*.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s://doi.org/10.17226/11876>.
- Newton, I. (1687). *Philosophiæ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 London: Royal Society.
- Nussbaum, M. (2001).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iver, E. (2016). "Theology: Still a Queen of Science in the Post-Modern Era". In *In die Skriflig*, 50(1), a2064.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4102/ids.v50i1.2064> (2024.10.29)
- Osborn, E. F. (2005). *Clement of Alexand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P. (1998). *The Courage to Teach: Exploring the Inner Landscape of a Teacher's Lif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Patrick, J. (2004). Origen's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in Menzies, A. (Ed.) (2004). *Ante-Nicene Fathers* (Vol. 9).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 Popper, K. (1959).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NY: Basic Books.
- Reimarus, H. S. (1972). *Apologie oder Schutzschrift für die vernünftigen Verehrer Gottes*. (Ed.) Alexander, G. Frankfurt: Insel-Verlag.
- Rohlf, M. (2024). "Immanuel Kant".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kant/> (2024.10.29)
- Rosenberg, A. (2000). *Philosophy of Science: A Contemporary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 Schleiermacher, F. (1928). *The Christian Faith*. Trans. & (Ed.) Mackintosh, H. R. & Stewart, J. S. Edinburgh: T&T Clark.

- Schleiermacher, F. (1966). *Brief Outline of the Study of Theology*. Trans. Tice, T. N.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 Sedley, D. (2019). "Plato's Theology". In *The Oxford Handbook of Plato*. Retrieved from <https://academic.oup.com/edited-volume/41754/chapter-abstract/354205224> (2024.10.29)
- Shapin, S. (1996). *The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nyder, L. J. (2011). *The Philosophical Breakfast Club: Four Remarkable Friends Who Transformed Science and Changed the World*. New York, NY: Broadway Books.
- Spinoza, B. (2021). *Theologico-Political Treatise*. Trans. Elwes, R. H. M. Independently published.
- Stichweh, R. (2001). Scientific Disciplines, History of. in Smelser, N. J. & Baltes, P. B. (Ed.) (2001).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pp. 13727-13731). Amsterdam: Elsevier.
- Strauss, D. F. (1835-1836). *Das Leben Jesu, kritisch bearbeitet*. Tübingen: C. F. Osiander.
- Taylor, C. (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aylor, C. (2007). *A Secular 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illich, P. (1951). *Systematic Theology, Vol. 1*.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llich, P. (1957). *Dynamics of Faith*. New York, NY: Harper & Row.
- Trowler, P., Saunders, M. & Bamber, V. (Ed.) (2012). *Tribes and Territories in the 21st Century: Rethinking the Significance of Disciplines in Higher Education*. London: Routledge.
- Uzgalis, W. (2022). "John Locke".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locke/> (2024.10.29)
- Voltaire. (1764). *Dictionnaire philosophique [Philosophical dictionary]*. (Original work published anonymously in Geneva.
- Wellhausen, J. (1883).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G. Reimer.

- Wittrock, B. (1993). *The Modern University: The Three Transformations*. in Rothblatt, S. & Wittrock, B. (Ed.) (1993). *The European and American University Since 1800: Historical and Sociological Essays* (pp. 303-36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lfe, C. T. (2019). "Denis Diderot".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diderot/> (2024.10.29.)
- "Cyril of Alexandria". Wikipedia. (n.d.).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Cyril_of_Alexandria (2024. 11. 30)
- "Gregory of Nazianzus". Wikipedia. (n.d.).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Gregory_of_Nazianzus (2024. 11. 30)
- "Superstring theory", Wikipedia (2024.9.8).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Superstring_theory (2024.10.29)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위험성과 개혁주의 신학적 대안

The Dangers of the Claim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and Reformed Theological Alternatives

김진규 (백석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개혁주의 신학적 대안을 제시한다. 계몽주의적 이성주의는 자연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성주의, 경험주의, 회의주의에 대한 교조적 믿음으로 인해 신학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 가지 주된 반응이 나타났다. 역사비평학이나 철학적 사조를 통해 신학의 학문적 지위를 입증하려는 시도, 신학과 학문의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신학의 학문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이다. 본 논문은 최근 장종현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의 계시관, 신학관, 학문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헤르만 바빙크의 보편학문 개념과 계시 이해를 바탕으로, “신학/학문이란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에 내재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라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 제안은 신학과 다른 학문이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되, 일반학문은 일반계시를, 신학은 특별계시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진리 추구를 통해 상호 연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은 신학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진정한 학문으로 확립한다.

주제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 학문, 헤르만 바빙크, 계시